

“훈련은 실전처럼”…테러 위기대응 역량 높인다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현장

민·관·군·경 투입…화재 진압·테러범 제압 총력
인명 구조부터 전력·통신 복구까지…입체 대응

“우르르 굉! 굉!”
19일 오후 2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평소 민원인과 직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던 청사 광장에 갑작스러운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청사 상공으로 날아든 드론 한 대가 폭탄을 떨어뜨린 뒤 옥상을 향해 돌진했다. 굉음과 함께 주황색 연막이 퍼졌고, 청사 옥상과 출입구 주변에는 불길기 치솟았다. 동시에 검은 옷을 입고 가방을 든 거수자 2명이 청사 안으로 침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평온했던 청사가 순식간에 드론 공격과 화재, 테러가 발생한 복합 위기 현장으로 바뀌었다.
이날 복구청에서 진행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의 한 장면이다.
훈련에는 복구청을 비롯해 북부경찰서, 육군 제31보병사단 6753부대 3대대, 북부소방서,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KT 북광주지사, 북구 직장민방위대 등 7개 기관·단체에서 80여명이 참여했다.
첫 대응은 경찰이 맡았다. 거수자 침입 신고를 받은 북부경찰서 초동대응팀 6명과 112 순찰차가 현장으로 출동해 청사 주변에 플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접근을 통제했다.
이어 군 차량과 병력이 투입됐다. 3대대 기동 1·2팀은 청사 주변을 수색하며 침입한 거수자의 동선을 쫓아갔다.
이후 드론 공격으로 청사 옥상에 불이 붙고 대피로까지 위협받으면서 화재 대응이 동시에 시작됐다. 이후 비상방송이 울리자 민방위대원들이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불길기 번지는 것을 막는 동시에 청사 내부에 남아 있던 직원들의 대피로를 확보했다.
직원 20여명은 경찰과 민방위대원의 안내를 받아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대피는 비교적 질서 있게 진행됐다.
잠시 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옥상 화재를 향해 물을 뿌리며 진압에 나섰다. 구조대원들은 연기가 차오른 청사 내부로 진입했다. 구조대원들은 중상자 1명을 발견해 들것으로 건물 밖까지 옮겼다. 응급의료소에서는 보건소 의료진이 부상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를 실시했으며, 중상자는 구급차를 통해 광주현대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가 진행되는 동안 군과 경찰의 테러범 검거 작전도 이어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주송정역에서 열린 ‘2026 을지연습 연계 생물테러 대응 훈련’에서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졌다.
수색에 나선 군 기동팀은 분관 쪽으로 이동하던 거수자 2명을 발견해 현장에서 제압한 뒤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테러범을 이송하는 한편 현장에 남은 위험요소를 확인했다.
불길기 잡히고 테러범이 제압되면서 현장은 북구 단계로 전환됐다.
현장지휘소에서는 각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피해 상황과 추가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이어 보건소 방역차가 현장에 투입돼 오염 가능 지역을 소독했고, 한국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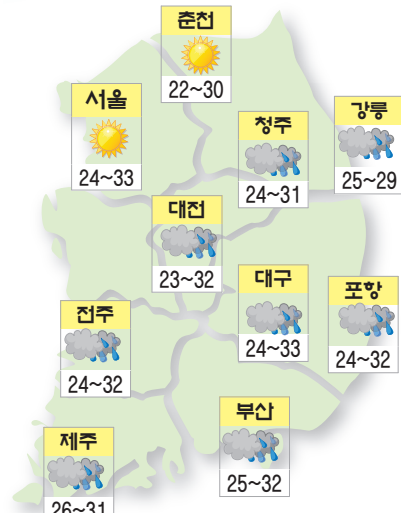
과 KT는 테러 과정에서 파손된 전력·통신 시설을 확인, 복구작업을 진행했다.
테러 발생 신고부터 현장 통제와 대피, 화재 진압, 인명 구조, 테러범 제압, 피해 복구까지 이어진 훈련은 약 40분 만에 마무리됐다.
다른 자치구들도 실제훈련을 통해 기관 간 공조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동구는 이날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다중이용시설 내 드론 테러 상황을 가정한 실전 훈련을 실시했다. 남구는 송하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 비축

기지에서 복합 테러 대응 실전 훈련을 진행했다.
광산구는 광주송정역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생물테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에는 8개 기관 100여명이 참여했다.
신수정 복구청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 테러나 재난 상황에서 기관별 역할과 협조체계를 점검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5:56	달출	13:33
해질	17:58	달림	23:15



광주	24~33
목포	25~32
여수	24~32
순천	23~32
구례	23~33
광주	24~33
임도	25~32
흑산도	25~33
고흥	24~33
진도	24~32

목포	일출(교)	06:44 / 19:44
	셋물(저)	12:00 / ---:---
여수	일출(교)	00:50 / 13:57
	셋물(저)	06:59 / 20:00

○…중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의 우편함 등에 8차례 불을 지른 30대 여성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져.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재판장은 스토커처벌법 위반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또 스토커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

A씨는 올해 5월28일부터 6월8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50대 여성 B씨의 우편함과 주거지 인근에 총 8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뒷집에 사는 B씨와 중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 또 A씨는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고, 24시간 음악을 틀는 등 혐의로도 적음.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북구, ‘14년 연속’ 일자리 창출 우수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243개 지자체 공시제 부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일자리 창출 역량이 뛰어난 지자체로 14년 연속 선정됐다.
북구는 19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6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과 창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평가이다. 북구는 지자체가 수립한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비교해 성과를 평가받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지난해 고용 플랫폼을 활용한 청

년 취·창업 원스톱 지원, 골목상권 맞춤형 정책을 통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공공 일자리 사업 추진 등으로 당초 목표보다 123% 초과한 2만423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점이 호평받았다. 또 중흥·신안동 주민협의체 기반 마을기업 지원, 경력 단절 여성과 돌봄 수요 기반 일자리 매칭, 산업단지 청년 노동자 정착 지원 등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북구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분야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아 전국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14년 연속 일자리 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특별시소방본부·서부소방 합동청사 건립 ‘순항’

711억 투입…2027년 3월 착공 2029년 3월 준공 목표
소방 지휘부·현장 대응 한 곳에…재난대응 강화 기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와 서부소방서를 한 곳에 배치하는 합동청사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본부·서부소방서 합동청사는 서구 화정동 324-2번지 일원 19필지에 연면적 1만2359㎡,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된다. 청사 1~4층에 서부소방서가, 5~6층에는 소방본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건립 40년이 지난 서부소방서 청사의 노후화와 구조적 안전성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재난 상황을 총괄하는 소방본부와

현장 대응을 담당하는 서부소방서를 한 건물에 배치해 지휘·현장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사업은 2020년 소방본부·서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 기본계획 방침에 따라 시작됐다.
2022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23년 건축기획 심의와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했으며, 2024년 설계공모와 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지난해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했다.

소방본부는 추정예산 확보 후 공사·용역 발주와 계약 절차를 거쳐 오는 2027년 3월 착공, 2029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711억원으로 시비 466억원과 소방안전교부세 245억원이 투입된다. 현재까지 240억원이 반영됐으며, 향후 471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합동청사가 완공되면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청사 16~17층에 위치한 광주광역시소방본부도 신축 청사로 이전하게 된다. 소방본부와 서부소방서가 한 공간에서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서 재난 발생 초기 상황 판단부터 현장 지휘, 대응까지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무료 공영주차장 알박기 막는다…속속 ‘유료 전환’

하루 최대 8000원 수준…인근 도로 풍선효과 우려
주민들 “불법주차 늘 것”…자치구 “주차질서 개선”

무료로 운영되던 공영주차장이 일부 차량의 장기주차로 골목을 앞뒤로 따라 유료로 전환되고 있다. 장기주차 차량을 줄이고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주민들은 인근 주차난과 골목길 불법주차자가 심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상무센트럴하이 아파트의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쌍촌 공영주차장(쌍촌동 967-2)이 오는 9월1일부터 유료로 운영된다.
48면 규모인 쌍촌 공영주차장은 그동안 연중무휴 무료로 운영되면서 주민과

인근 시설 이용객들의 주차공간 역할을 해왔다. 서광주세무서와 운전역, 5·18 기념공원, 주변 상가 등이 가까워 이용객도 많은 곳이다.
하지만 무료 운영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차량이 주차면을 장기간 점유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상가 방문객이나 민원인, 인근 주민들이 정차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주차장 회전율이 떨어지면서 관련 민원도 잇따랐다.
서구는 결국 주차장 이용 효율을 높이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료화를 결정했다. 지난 4일 구청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을 통해 쌍촌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쌍촌 공영주차장(쌍촌동 967-2)이 오는 9월1일부터 유료로 운영된다.

영을 위한 행정에고도 했다.
유료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차요금은 최초 30분까지 700원이며 이후 15분을 초과할 때마다 350원이 추가된다. 하루 최대 요금

은 8000원. 월 정기주차 요금은 주간 기준 8만8000원이다. 오후 8시 이후와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기존처럼 무료로 개방된다.
무료 공영주차장의 유료 전환은 서구

만의 현상도 아니다.
동구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앞 공영주차장(동명동 181-5·24면)은 2015년 4월부터 무료로 운영됐지만 지난해 3월 유료로 전환됐다. 장난감도서관과 실내놀이터, 공유센터 등이 있어 학부모와 주민 이용객이 많았지만 일부 차량이 장기간 주차하거나 개인 주차장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한유치원 옆 공영주차장(내남동 305·47면)도 인근 공사 차량과 장비 등이 장기간 주차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자치구들은 무료 주차장에 장기주차 차량이 늘어나면 정차 주차공간이 필요한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만큼 유료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유료화가 장기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주차 수요를 주변 도로와 골목길로 밀어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쌍촌동 주민 김모씨(50)는 “평소 무료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했는데 유료로

바뀌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한 차량들이 인근 도로로 몰릴 것 같다”며 “일부 차량의 장기주차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왜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결국 공영주차장 유료화가 장기주차 차량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 지역의 주차난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이용 행태를 면밀히 살피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구도 유료화 이후 이용 행태를 지켜본 뒤 운영방식을 조정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장기주차로 인해 공영주차장이 사실상 일부 차량의 전용 주차장처럼 이용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일정 기간 주차장 이용률과 주민 만족도 등을 분석한 뒤 요금 징수 시간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영주차장이 특정 차량이 아닌 주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주차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